

오키나와현에 홍역 유행

상담 : 가까운 보건소에
병원에 가기전에 우선은 전화를!

발행 : 2018년 4월 5일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DCC 국제감염증대책실
info-dcc@hosp.ncgm.go.jp

오키나와에서 귀국한 후 건강이 안좋다면?

「2회의 홍역 예방주사」를 접종하지않았을 경우, 감염이 되어 발증할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귀국하신 후, 건강이 좋지않아 병원에 가실 경우에는 갑자기 진찰을 받지마시고, 우선은 병원이나 클리닉에 전화로 상담을 하시고, 여행중의 사정과 건강상태를 알려주세요.

진찰을 받기까지의 지시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기실에서 노약자를 포함한 감염확산의 예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증상》

초기 : 감기와 유사한 증상
콧물, 기침, 권태감, 눈의 충혈
또 이런 증상 후에 나타나는
고열, 피부에 빨간 발진 등.



예방접종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홍역예방접종을 하지않은」
「홍역예방접종을 한 기억이 확실치 않은」
「예전에 홍역에 걸렸는지 확실치 않은」 분이 있습니다.



홍역 환자와 접촉하신 경우, 통학 또는 통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2회가 안되는 부족한 경우, 기억이 확실치 않은 경우 등
학교와 직장의 책임자에 연락해 귀국후의 대책상담을 받아주세요.

